

용어학의 개념과 용어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s of Terminology
and the Terminological Database

김 현주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김 성혁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Hyun-Ju Kim Sung-Hyuk Kim
Dept. of Lib. & Inf. Sci., SookMyung Univ.

본 논문은 용어학의 전반적인 개념과 용어작업의 결과가 집약되는 용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사항을 고찰하였다.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용어학과 정보학과의 관계를 도출하였으며, 두 학문의 상호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 서론

각 학문분야는 자신의 연구 대상이 되는 고유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학문의 발전과 발전, 발명에 의하여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며 그 의미가 전환 또는 소멸되기도 한다. 보통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대상 개념에 용어나 상징을 부여하는데 이런 용어나 상징은 각 언어마다 다른 형태를 가지면서 상호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

동일한 개념에 부여된 서로 다른 형태의 용어나 상징들은 상호 의사소통시 잡음을 발생시키게 되며 이러한 잡음은 기존의 인간 대 인간 커뮤니케이션보다 현재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검색 환경에서 한층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원활한 상호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세기초 독일에서 대규모 용어를 기록하는 등 용어학에 관한 초기 활동이 시작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용어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연구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용어학의 필요성과 역할, 주요 연구분야, 정보학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용어학 일반

2.1 Terminology

Terminology는 'terminus'에서 유래된 용어로 어원적으로 다음 3가지 개념이 부여되어 있다 (Felber 1984, 1).

- ① 학문으로서의 terminology ; 어떤 개념과 그 개념들의 표현을 다루는 지식의 학제적 분야. 보통 용어학 (terminology science)으로 표현.
- ② 각 주제분야의 개념체계 (system of concepts)를 표현하는 용어들의 집합체. 우리말로 '개념체계의 집합'이라고 표현.
- ③ 용어로 표현된 각 주제분야의 개념체계를 기록하고 있는 출판물. 시소러스, 전문용어집, 어휘집, 사전, 용어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나타남.

가장 포괄적인 개념인 학문으로서의 terminology, 즉 용어학 전반에 걸친 용어작업 (terminology work)은 크게 지식의 정리활동과 지식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지식의 정리활동에서는 Nedobity (1983, 227-234), Felber (1984, 1)가

지적인 것처럼 문헌의 초록작성 및 내용요약, 분류 등 정보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주제분야에 대한 분석과 개념 및 그를 표현하는 용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지식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번역과 통역을 통하여 지식, 기능, 기술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의 생성과 보급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용어작업에 포함되는 활동을 Felber (1984, 12-13)는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주제영역에서 개념에 부여된 용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일, 둘째, 주제영역의 개념체계를 정리하고 표준화, 규격화시키는 일, 셋째, 개념과 용어와의 관계를 표준화시키고 규격화시키는 일, 넷째, 설명과 정의를 사용하여 개념을 기술하고 그 개념에 부여된 정의를 표준화, 규격화시키는 일, 다섯째, 개념과 용어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일로 구분하였다.

한편 Meyer (1992, 22)는 용어작업의 지식집약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는 실제적인 용어작업의 시발점은 개념이며, 개념은 지식의 기초단위 (building block)이므로 개념을 기술한다는 것은 그 개념의 특성에 관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명칭을 부여한다는 것은 언어적 형태로 어떤 개념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아 용어학은 용어 그 자체에 대한 연구라기보다 용어에 의하여 전달되는 지식에 관한 연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용어작업은 개념 및 용어의 표준화와 그 개념으로 구성되는 주제분야의 지식 전체를 다루는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용어를 사용하여 지식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때문에 용어작업은 인간의 지식활동이 일어나는 모든 학문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2 용어학의 일반이론

용어학에 대한 주요 학파로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학파 (The Vienna School of Terminology)와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 학파 (The Prague School of Terminology), 구소련의 소비에트 학파 (The Soviet School of Terminology)로 구분할 수 있으며 더하여 기계번역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면서 독자적인 용어학을 성립시킨 캐나다의 용어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Felber 1984, 32-41 ; Felber, et al. 1987, 3-4).

이 중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학파는 용어학에 대한 주제지향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여 용어학의 학파 중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ISO 등 여러 국제적인 표준협회의 용어학 관련 연구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비엔나 학파의 시조격인 Wüster는 1979년 *Einführung in die Terminologielehre und Terminologische Lexikographie*라는 논문에서 용어학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용어학의 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Terminology)을 발표하였다 (Felber 1984, 97). 이 일반이론은 각각의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개념과 용어의 현상을 이론화시킨 것으로서 용어학에 대한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며 개념과 용어의 표준화 및 용어작업의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Wüster의 일반이론은 일반적인 언어학에서의 언어이론과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용어작업은 개념을 다루며 개념의 한계 및 범위를 엄밀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념의 본체는 그것을 표현하는 용어의 본체와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언어학에서 단어의 의미내포나 함축을 고려해야 하는 반면, 용어학에서는 각 개념에 직접적으로 용어를 부여하므로 이러한 함축이나 의미의 내포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개념에 부여된 용어는 굴절이나 어형변화법칙과는 그리 큰 관계가 없다. 셋째, 언어에 대한 용어학적 관점은 현재적이어서 용어의 현재적 의미가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이다 (Felber 1984, 97-98).

용어작업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용어일반이론은 개념의 본성과 형성, 특징, 개념간의 상호 관계, 개념의 결합과 개념체계의 구성, 개념의 기술 및 표현, 개체와 개념과 명칭과의 관계, 용어의 본성, 용어의 구성과 형성, 개념과 용어의 표준화, 용어학과 사전편집학 등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Felber, et al. 1987, 6-7).

이런 일반이론과 더불어 용어학의 특수이론 (Special Theory of Terminology)은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하나의 언어로 표현된 개념체계의 집합을 지배하는 특성과 규칙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Felber, et al. 1987, 7). 보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용어작업은 이러한 두 가지 이론적 기반 아래 일관된 용어학적 방법과 원칙을 사용할 때 달성할 수 있다.

2.3 용어학에서의 표준화

용어학에서의 표준화 활동은 용어 그 자체로부터 개념과 용어의 관계, 개념체계, 개념체계의 표현법 등 용어작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준화된 용어학적 원칙과 방법이 필요한 이유를 Felber (1984, 2)는 각 언어에서 단어를 형성할 때 사용하는 단어요소 (word element)보다 개념의 수가 수천 배나 더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개념을 표현할 때에는 단어의 조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의미의 변화를 가져와 각 개념체제에서 혼란을 일으켜 상호 의사소통시 잡음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Felber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용어작성시 가이드라인과 각종 표준안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각 분야에서의 표준화가 경제성에 기반을 두고 있듯이 용어의 표준화 및 규격화도 언어경제성 (language economy)이라는 발상에서 출발하였다 (Felber, et al. 1987, 12).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용어표준화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져 왔지만 용어표준화의 근본 목적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개념과 용어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 아래 통일된 원칙과 방법을 사용하여 개념과 용어를 다루고 그 표준을 제정하는 것은 정보검색뿐 아니라 기계번역 등, 인공지능 전반에 걸친 기반 (base)을 제공한다.

용어학의 표준에 관계하는 대규모 기관은 1971년 UNESCO가 설립한 Infoterm (International Information Centre for Terminology)과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C 37이 있다.

Infoterm은 UNESCO의 UNISIST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설립되었으며 오스트리아 정부와 Federal Chamber of Commerce, 오스트리아 표준협회의 후원을 받는다. Infoterm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은 용어학 전반에 걸친 자료수집과 2차자료 편집, 교육, 연구활동, 국제적 학술회의 개최 등이다. 1975년 Infoterm의 첫번째 국제회의에서 Infoterm의 원활한 활동과 용어학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TermNet (Network for Terminology)이라는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TermNet은 세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데, 첫번째 프로그램은 용어학을 위한 학문적 기초를 개발하는 것이며, 두 번째 프로그램은 용어들을 수집하고 기계가독형태로 기록하는 작업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세 번째 프로그램은 용어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데 있어 상호 협력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Infoterm의 연구결과는 공식적으로 ISO에서 표준안으로 제정되고 있다. 오스트리아가 간사국인 TC 37 Terminology - Principles and Coordination에서는 용어의 작성과 편찬 및 조성방법에 관한 국제 규격을 제정하고 있다. TC 37에는 세계의 SC (Sub-Committee)가 있는데, SC 1 Principles of terminology에서는 용어의 원칙, 방법 및 개념체제에 관한 국제 규격을 제정하고 SC 2 Layout of

vocabularies에서는 용어의 기술원칙과 방법, 로마자 사용, 언어의 alphanumeric data의 알파벳순 배열원칙과 방법 등에 관한 국제적인 규격을 제정한다. SC 3 Computational aids in terminology에서는 데이터요소, 어휘, SGML 응용에 관한 국제 규격을 제정하고 있다.

2.4 용어데이터베이스

용어학적 편집법 (terminography)은 용어학적 연구에 의하여 얻어진 용어관련 데이터를 기록하고 처리하며 표현하는 것이며 (ISO 1087), 용어학적 원칙과 방법에 의하여 주제분야내 개념과 다른 개념과의 관계, 개념과 그에 부여된 용어와의 관계 등을 분석한 후, 그 개념체제를 시각적으로 기술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개념이나 하나의 용어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표현하며 용어관련 데이터의 유통 및 보급에 중점을 둔다.

기존의 시소러스나 전문용어집, 사전 등이 이러한 용어학적 편집법의 결과물로 나타났으며 용어학적 편집법에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용어데이터베이스 (terminological database)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용어데이터베이스를 Nikwenti-Azeh (1994, 67-74)는 발전 단계에 따라 크게 다음 3가지로 구분하였다.

- ① 용어지향적 데이터베이스 ;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구축된 용어데이터베이스도 용어학적 이론이나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 ② 개념지향적 데이터베이스 ; 제충구조의 사고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한 것으로서 용어와 개념간의 다양한 관계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 ③ 지식지향적 데이터베이스 ; 용어를 특수한 지식의 표현으로 간주하여 용어데이터베이스를 전문가시스템으로 간주한다.

아직 연구개발 중인 지식지향적 용어데이터베이스는 용어작업을 거쳐 생성된 각종 용어관련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는 기계가독형 용어사전으로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어휘데이터베이스 (lexical database), 전자사전 (electronic database)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식지향적 용어데이터베이스의 연구 동향을 종합해 보면 첫째, 개념과 용어 사이에 나타나는 다양한 관계를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용어정보의 표현에 적합한 데이터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며 둘째, 용어관련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접근점과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셋째, 수준이 각각 다른 이용자들에게 각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용어정보를 제공하고 넷째, 이용자 우호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용어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자유로운 탐색을 가능하게 하며 다섯째, 다른 용어데이터베이스

이스나 정보검색 시스템과의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 네트워크 상에서 용어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점차적으로 여러 언어로 표현된 여러 주제분야를 포괄하는 용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경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제 표준으로 지정된 용어관련 데이터의 교환 포맷은 MARC 포맷을 기반으로한 ISO 6156 MATER (Magnetic tape exchange format for Terminological/lexicographical Records)와 SGML의 응용인 ISO/DIS 12200 TIF (Computational Aids in Terminology - Terminology Interchange Format (TIF) - An SGML Application)가 있다. 정보의 국제적인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용어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용어데이터베이스와 상호 호환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포맷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3. 정보학과 용어학의 관계

이미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였고 (Nedobity 1983 ; Meyer 1992 ; Yokoi 1994), 위에서 살펴본 대로 용어학과 정보학은 여러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두 학문의 연구대상은 지식이며 이 지식은 언어 (좁은 의미에서는 용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표현되고 전달된다.

Nedobity (1983, 228)는 용어가 첫째, 개념시스템을 표현하여 학문적 개념을 체계화하고 둘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지식을 전달하며 셋째,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지식을 확산시키며 넷째,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형성, 요약하며 다섯째, 정보의 저장과 검색 활동의 기본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보조직의 mechanism과 정보의 구조, 사회적 행태 등을 연구하는 학문인 정보학은 (Yokoi 1994, 143),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의 mechanism을 연구함으로써 정보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학문분야의 개념체계가 정립되면 그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가 용이해 지고 이것은 색인과 초록작성 업무에 있어 과학적인 정보의 조직을 가능하게 한다. 개념과 용어 사이의 다양한 관계와 용어 현상에 대한 이해는 시소러스와 같은 정보검색 도구의 작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정보의 흐름은 한 국가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각 언어에서 학문분야에 대한 개념체계의 정립과 다언어 용어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국가간 정보의 전달에 중요한 도구가 된다. 또한 이들은 정보의 자동적인 분석과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용어정보를 제공하며 용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업무는 지식을 표

현하는 매개체인 언어와 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정보학의 잠재적인 학문적 가능성과 역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4. 결론

국제적인 지식의 전달과 학술교류 및 번역작업이 활발해지고 자연언어처리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용어학과 용어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관심은 점차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시각하에 본 연구는 용어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정보학과 용어학에 대한 상호 관계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용어학은 전 학문분야의 기반이 되는 기초적인 학문분야이다. 특히 정보학은 용어학과의 상호교류 아래 각각의 학문발전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용어학 및 용어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우리말 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외국과의 상호 협력아래 용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주. 1995. 우리말 용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포맷 설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Felber, H. 1984. Terminology Manual. Paris : Infoterm.

Felber, H., C. Gafinski. & 大島富士子. 1987. "タミノロジ 學の概観." In タミノロジ 學, eds. 尾關周二. & ガリンキ. 京都 : 文理閣, 3-25.

ISO 1087:1990. Terminology - Vocabulary.

Meyer, I. 1992. "Knowledge Management for Terminology-Intensive Application: Needs and Tools." In Lexical Semantics and Knowledge Representation, eds. J. Pustejovsky, & S. Bergler. Heidelberg : Springer-Verlag, 21-37.

Nedobity, W. 1983. "Terminology and Its Application to Classification, Indexing and Abstracting." Unesco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4: 227-234.

Nkwenti-Azeh, B. 1994. "New Trends in Terminology Processing and Implications for Practical Translation." Aslib Proceedings 46 (3): 67-74.

Yokoi, T. 1994. "The EDR Electronic Dictionary and Its Role in the Information Science." In Proceedings of 47th FID Conference and Congress. Toyko : FID, 143-147.